



디지털로 만나는 '지구의 시간'

전시장 입구에 조성돼 몰입을 이끄는 상상의 게이트인 'Imaginary Portal'.

동굴을 모터보로 한 빛의 게이트에 서면 지구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화면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렵잖아 태고의 시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지구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이 '지구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융복합 콘텐츠 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11월 6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2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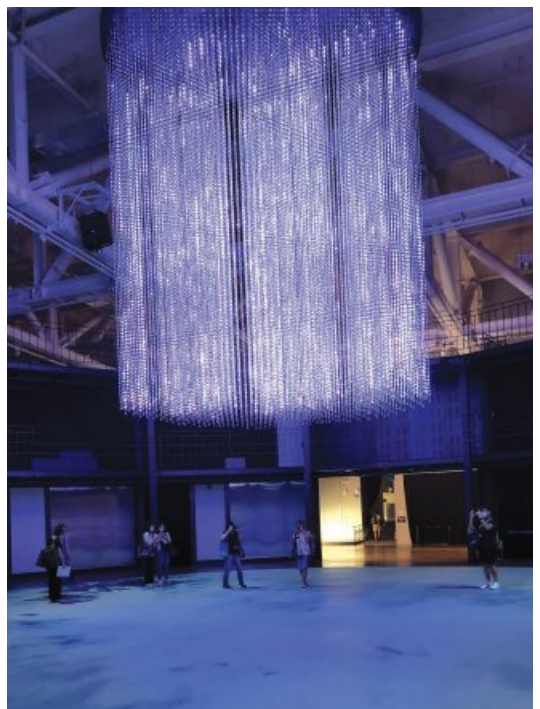
전시관에 들어서면 문득 지구의 시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마주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할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과거이고 현재인지 호기심이 있다. 그러나 흘러가듯 펼쳐지는 콘텐츠를 보고 있으면 지구의 시간을 나누는 게 별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일 뿐 관객들은 저마다의 인식과 사유 체계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을 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에서는 디지털로 그린 콘텐츠 9점을 볼 수 있다. 입구에 설치된 미디어 월은 거대한 빛의 게이트(상상의 게이트)다. 일상과 아트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몰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상상의 세계로, 가능할 수 없는 지구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상상의 게이트 안에는 상상 너머의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전시장 천장에 달린 대형 LED 상들리에와 지름 16m의 거대한 원형의 바닥이 호응하는 구조가 관객을 맞이한다. '물의 순환'이라는 주제의 콘텐츠는 폭포 영상으로 변화되는 상들리에와 물의 파장이 맞물려 다채로운 영상이 구현된다. 일명 대화형(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변화무쌍한 물의 파장이 한여름의 무더위를 씻어낸다.

ACC 융복합 콘텐츠 전시, 11월6일까지 문화창조원 과거·현재·미래 조명...루시드 폴 협업 '원데이' 눈길

인기 공학박사이자 음유시인으로 알려진 루시드 폴과 협업한 콘텐츠도 눈에 띈다. 명상적인 음악과 빛이 변하는 모습을 융합해 매체예술로 표현한 '원데이'(One Day)가 그것. 어느 한 날의 변화와 순환은 '지구의 기억'으로 명명된다. 루시드 폴의 몰입형 사운드와 360도 디지털영상으로 구현된 영상은 다채



LED 상들리에와 바닥의 원형 영상이 조화를 이룬 콘텐츠 '물의 순환'.

로운 지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동이 뜨기 전 푸르스름한 하늘과 해질녘 불그스름한 노을이 시간과 맞물려 변화하는 모습은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간은 어떤 느낌일까? '뉴플래너터리 시스템'은 거울의 반사를 활용한 작품이다. 거대한 태양계를 상징하는 크고 작은 구체가 미디어아트로 구현된 모습은 입체감을 극대화한다. 점과 선, 면이 다층적으로 이뤄져 펼쳐지는 공간과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의 변화는 비일상성을 한기한다.

청각을 매개로 찰나의 순간을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사운드 웨이브'는 제목 그대로 소리가 중요 모티브다. 마이크를 통해 소리를 발화하면 지구의 시간 속에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그래픽으로 표현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앞서의 콘텐츠들은 결국 지구의 시간은 '생명의 씨앗'인 지구를 조화화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이들 작품과 연계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비비런'. 지구의 자연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었다. 관객객 참여 영상과의 상호 작용이 가능해, 그 자체로 흥미를 유발한다. 주인공 비비런은 환경오염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회복시키자는 의미를 전달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종운 작 '수식의 바다'

'감각하는 자연'으로 떠나는 아트바캉스

권부문·김지수·최선·최종운, 2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전시장에 들어서면 어디선가 파도소리가 들려온다. 익숙한 수평의 바다 대신, 세로로 설치된 작품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조응하며 넘실댄다. 소금을 채취하는 염부들이 사용한 이불 위에 그린 붉은색 함초가 인상적인 작품도 눈길을 끌며 쏟아져 내리는 듯한 폭포 사진은 시원함을 더한다.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아트바캉스 '감각하는 자연: Explore Your Senses'전이 오는 26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전은 전시 제목처럼 자연과 감각이 어우러진 전시로 시각 뿐 아니라 청각과 후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작품을 만나는 체험형 프로젝트다.

전시에는 권부문·김지수·최선·최종운 네 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이들이 소재로 삼은 건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영감을 얻은 것들이다.

전시장 초입에서 만나는 권부문 작가의 사진 작품은 신비로운 느낌도 자아내는 강렬한 물줄기가 인상적이다. 아이슬란드에서 촬영한 흑백의 'SKOGAR' 연작은 강렬하고 물이 떨어져 내리는 현장의 감각을 푸른색으로 표현한 'WATERFALL'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의 폭포를 보여주며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

게 해준다. 권도우 갤러리에 전시된 최 선 작가의 '부작함초'는 염전에서 자란 함초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붉은 색감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작가는 "식물이 자랄 수 없을 것만 같은 적박한 염전의 환경 속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을 보여준 함초는 삶과 생명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듯하다"고 말한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소금은 말한다' 연작은 바다 속 소금을 통해 그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전한다. 전시장에는 전국 곳곳의 바다에서 채집한 소금이 놓여져 있고, 그 소금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최종운의 '수식의 바다'는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움직이면 시원한 파도소리와 물결의 흔들림을 보여준다. 예측가능한 수평이 아닌 수직의 장벽으로 표현된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미미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김지수의 '식물과의 대화'는 수생식물에게 말을 건네면 환하게 발하는 빛과 함께 염류체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식물의 모습을 그린 회화 작품도 함께 만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Hero'

가상 영웅 'Hero'가 온다

이시주 개인전, 20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나의 영웅을 찾아서.' 대체로운 캐릭터로 풀어낸 영웅의 이미지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이시주 작가 세번째 개인전이 오는 20일까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돼 마련됐다.

이번 전시 제목은 'Hero'다. 전시작들은 캐릭터 작업의 특성인 다채롭고 화려한 컬러감이 특징이다. 작품 소재는 건담, 아톰, 세일러 문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영웅 캐릭터와 작가가 상상력을 가미해 새롭게 창작해낸 가상의 캐릭터들이다.

소심하고, 인간 관계에 서툰 탓에 세상에 순응하며 휩쓸려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마주한 작가는 강한 자신감을 가진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시켰고,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

이 작가는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한다. 이

번 전시작들은 장지나 분채 등 전통적인 한국화 재료 대신 캔버스와 아크릴물감 등을 사용했다. 인물작업을 주로 해온 작가는 1년여 전부터 캐릭터 작업을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출발해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시작이었다. 다양한 색을 쓰는 작업을 좋아하고 어린 시절부터 캐릭터 등 귀여운 것들을 마음에 담아왔던 터였다. 자연스러운 은은한 느낌의 분채보다는 강렬한 색감의 아크릴 물감이 작업에 적합했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작가는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캐릭터 작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화와 캐릭터의 장점을 잘 파악해 유기적인 효과를 내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전남도미술대전 대상, 한국화특장전 최우수상을 등을 수상했다. 제15회 월야미술상을 수상, 조선대 미술관에서 개인 전시회도 개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은과 아름다운 하모니

22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광주시향교향악단이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은(사진)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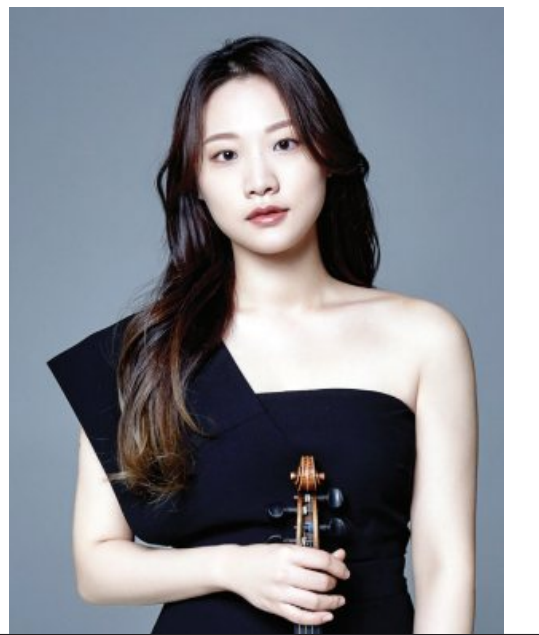
광주시향교향악단 제 365회 정기연주회 '자유'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을 선 보인다. 지휘는 흥성원 광주시향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맡는다.

첫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은과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를 연주한다. 젊은 시절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던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린이 아니면 불가능한 여러 표현들과 다채로운 기교들로 화려한 연주 효과가 뛰어난 작품이다.

정주은은 2021년 통영국제음악콩쿠르 입상, 202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했으며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이어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프로코피예프는 두 번의 전쟁과 혁명에 휘말렸던 자신의 극적인 생애를 7곡의 교향곡에 담아냈는데 교향곡 5번은 2차 세계대전 속에서 프로코피예프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담은 작품이다.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서정적, 서사적 교향곡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현대음악의 백미로 인정받고 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국제교류센터 클라빌레 '레인보우 클래식'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무지개 일곱 빛깔의 의미를 음악적 감성과 색채로 표현하는 공연.

광주문화재단은 11일(오후 7시 30분) 월요콘서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연다. 광주국제교류센터 클라빌레(사진)가 '레인보우 클래식'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바로크부터 현대까지의 시대별 가곡들을 성악가 7인의 목소리와 첼로, 바이올린의 선율로 꾸민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박수연·송미나·이찬

순·이지연·김진남, 바리톤 김치영, 테너 고규남, 바이올린 양새미, 첼로 진채리, 피아노 김연·김준현, 해설 김명진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 산하 음악 단체인 광주국제교류센터 클라빌레는 성악을 비롯해 가악, 작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돼 있다.

월요콘서트는 공연 종료 후 관람객이 내고 싶은 만큼의 관람료를 내는 '감동후불제'를 도입했으며 관람료 전액은 공연예술단체에 지원한다. 전화예약.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